

대표팀 새사령탑 조광래의 속도축구 선언

1 “스페인같은 기술축구로 세계에 도전”

조광래감독 “내 목표는 한국축구의 세계화” 5대 청사진 공개

“한국 축구의 세계화가 목표다. 공수 전원이 빠른 축구를 구현하겠다.”

국가대표팀 사령탑에 선임된 조광래(56) 감독이 21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포부를 밝혔다. 밝은 표정으로 들어선 조 감독은 인터뷰 내내 여유를 잃지 않았다. 비전도 뚜렷해 보였다. 대표팀 승선의 첫 번째 요건으로 ‘프로정신’을 들었고, ‘스페인 축구’ ‘속도’ ‘전쟁’ ‘패스’ 등의 단어들이 수차례 등장했다. 조광래호의 큰 틀을 짐작해볼 수 있었다.

- 2 최근 주축멤버에 패스좋은 2~3명 보완
- 3 공·수 전환 빠른 선진축구 업그레이드
- 4 2014 월드컵 대비 2년차 새얼굴 시험
- 5 프로정신 철저히 무장된 선수만 뽑겠다

- 소감은.

“지도자로서 꿈은 대표팀 감독이었다. 원정 16강이라는 새 역사를 이룬 한국 축구는 기술 향상과 공수 전환의 과제를 부여 받았다. 수비 불안과 골 결정력 부족도 해결해야 한다. 한국 축구의 세계화를 목표로 공수 전환이 빠른 축구를 구현하겠다.”

- (대표팀 감독은) 독이 든 성배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 “기술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선임해줘 진심으로 감사하다. 빨라지는 세계 축구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적임자로 잘 택한 거라 생각한다. 현대 축구는 속도와의 전쟁이다. K리그는 물론 대표팀도 더 빨라져야 한다. 스페인 축구를 본 받아야 한다. 이번 월드컵에서 스페인, 네덜란드, 독일은 빠른 패스에 의한 공격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 여야의 화합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기술위원회나 협회에서 상당히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이 순간부터 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감독이다. 지금부터 한 가지 목표를 위해 한 마음으로 뭉치겠다.”

- 자신의 가장 큰 강점은.

“패스의 중요성을 10년 동안 외치고 다녔다. 이 부분만 발전되면 더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다. 난 프로 구단들을 상당히 존중한다. 대표팀이 잘 되기 위해서는 프로가 잘돼야 한다.”

- 8월 11일 평가전에 유럽파를 부를 것인가.

“기술위원회와 협의해 해야 한다. 선수들은 힘들겠지만 팬들을 위해서는 A매치는 될 수 있으면 다 같이 참가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다.”

- 코칭스태프 인선은.

“부족한 부분을 메워줄 집단으로 뽑겠다. GK코치나 피지컬 트레이너는 기본이고 대표팀 운영 관리에 대한 조언을 들을 전문가를 모시겠다.”

- 아시안 컵이 내년에 있다.

“명확한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 기술위원회와 논의해야겠지만 월드컵을 위한 세대교체에 목표를 둔다면 과감하게 신예를 기용해야 한다. 우승을 하려면 해외파, 국내파의 조합이 중요하다. 어떤 경우든 우승은 당연한 목표다. 기술 축구로 변화를 위한 첫 시험대가 될 것 같다.”

- 경남FC와 겸임 문제는.

“서포터들과 만나 많은 대화를 나눴다. 팬들이 게시판에 올린 글을 보며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했다. 팬들이 저를 좀 이해 해주시리라 믿는다. (대표팀과 소속팀) 양쪽 다 하다보면 양쪽 다 망가질 수도 있다. 경남이 빨리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 조광래호에 승선할 선수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게 있다면.

“대표선수의 프라이드다. 기량도 중요하지만 철저한 프로정신을 갖춘 선수를 중용할 것이다. 명성에 의존하는 팀 구성이나 선발은 경계한다. 학연과 지연은 물론 종교, 이념 등을 초월해 기량만을 중시하겠다.”

- 대표팀에서 이것만큼은 꼭 이루고 싶다는 게 있다면.

“훈련의 70~80%를 늘 패스 연습에 할애했다. 그래서 스타 없이도 좋은 결과를 얻었다. 수비 부재에 대해 이야기가 많은데 좋은 수비수 발굴은 굉장히 중요하고 어릴 때부터 훈련이 필요하다. 하지만 조직력을 강화시키면 수비 부재도 보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기존 허정무호와 선수 구성에 큰 변화가 있다.

“지금 대표팀 선수들의 능력이 최고라고 본다. 그들은 깨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패스 능력이 있는 2~3명의 선수를 기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



조광래 신임 국가대표팀 감독이 22일 축구회관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갖고, 대표팀 운영 방안 등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밝히고 있다. 임진환 기자 photoilm@donga.com

조종연-조광래 갈등을 넘어...

회장선거때 대립...회견전 만나 훈훈한 애기꽃

조광래(56) 신임 대표팀 감독은 21일 오전 일찍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을 찾았다.

공식 기자회견은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었지만 1시간 가까이 일찍 도착해 축구협회 조종연(64) 회장을 만났다. 협회장과 대표팀 감독의 만남이 특별할 건 없지만 이번 경우는 좀 남다르다.

조 감독은 작년 회장 선거에서 조 회장의 반대파인 허승표 전 한국축구연구소 이사장을 공개 지지했다. 이번에 조 감독이 사령탑에 선임되자 축구계 안팎에서 의외라는 시선을 보내며 갈등의 골이 해소될 수 있는 계기로 보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축구계 여야의 수장 격인 두 사람의 회동에 궁금ужи 생길 법도 하다.

분위기는 시종일관 화기애애했다는 후문.

함께 참석한 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조 회장이 먼저 “지금 대표팀에 있는 선수들 다 조 감독이 키워놓은 선수들이니 어색할 것도 없고 급방 적응이 되겠다”며 덕담을 건넸다. 조 감독이 웃음으로 화답하자 조 회장은 “앞으로 축구협회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곧바로 이어진 조 감독의 공식 기자회견에서도 훈훈한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었다. 현재 협회와 경남FC 간 다소 입장차가 있는 겸임 문제에 대해 조 감독은 “(대표팀과 소속팀) 양쪽 다 하다보면 모두 망가질 수 있는 생각도 하게 됐다”며 협회의 입장을 수용할 뜻을 내비쳤다. 또한 “이 순간부터 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감독이라고 생각한다. (이전의 갈등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표팀 자료 다 내 놓으시오”

조감독, 업무 첫날부터 선수·일정 파악 분주

조광래 감독의 대표팀 사령탑 업무가 본격 시작됐다.

평소에도 꼼꼼하고 철저한 성격으로 잘 알려진 그는 공식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대표팀 파악에 들어가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다.

기자회견 직후 이사회에 참석해 인사를 나눈 뒤 홍보국에 들러 2009년부터 시기별 대표팀 소집 명단, 남아공월드컵 가이드 북, 해외원정용 대표팀 소개 책자, 협회 직원 연락처 등을 잔뜩 챙겨갔다.

홍보국 이원재 부장은 “대표팀 선수들의 특징이나 성격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물어보셔서 아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말씀드렸다. 어쩌다보니 1시간 이상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게 됐다”고 웃음을 지었다. 이사회 후 이사와 점심 식사를 한 뒤에는 협회 김진국 전무이사방을 찾았다.

협회 행정에 대해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김 전무와의 만남이었던 만큼 이번에는 좀 더 심도 있는 이야기가 오고 갔다. 조 감독은 매모까지 해 가며 김 전무와 향후 대표팀 일정과 방향 등에 대해 충분히 대화를 나눈 뒤에야 장원형 승용차에 몸을 실었다.

윤택식 기자 sportic@donga.com

편집 | 안도영 기자 ydalone@donga.com

‘앤정’ 하루2알이면... 아침에 일어나는 느낌이 달라!

피로회복, 면역력증진, 기억력개선, 혈액흐름이 원활하다면 언제나 청춘



또 엘라이프가 해냈습니다.

“앤정”은 과학이다!

제품의 경쟁력은 허위과대광고가 아닌 정직한 기능정보만의 전달이며, 포장도 중요하겠지만 내용에 충실한 것이 제일 일 것이다. “앤정”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기능정보만의 전달과 정직한 내용으로 국민건강에 이바지할 것이다.

홍삼농축액과 침향, 녹용, 산수유, 당귀 등의 절묘한 만남

엘라이프(주)연구개발팀에서 개발한 “앤정”은 홍삼농축액을 주원료로 침향,



녹용, 산수유, 당귀 등을 부원료로 사용하여 피로회복, 면역력증진은 물론, 혈소판응집, 억제제를 통한 혈액흐름에 도움을 준다는 것과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품목제조신고 된 제품이기 때문이다.

“앤정”보급형의 출시로 부담 없는 가격,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맛, 매력적인 기능성이 있어 더욱 좋다.



*홍삼농축액과 앤정에 실제 사용된 침향 이미지

39,800원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혈소판응집억제제를 통한
혈액흐름에 도움 ‘앤정’

고령의 나이라도 혈액흐름이 원활하다면 이팔청춘 부럽지 않다. 라는 말이 있다. 혈액응고작용과정에서 분비되는 조절물질은 혈관을 수축시킬 수 있으며 혈액응고작용은 혈액의 손실을 줄이고 정상적인 혈액흐름에 중요하지만 비정상적인 혈액응고작용은 혈액흐름을 방해할 수 있다. 혈관의 내피세포가 손상되면 그 안으로 콜레스테롤이 쌓여 플라그를 형성하게 되는데 플라그가 쌓인 혈관 부분이 부풀어 올라 혈관이 좁아져 혈액흐름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앤정” 하루 2알이면 혈소판 응집억제제를 통한 원활한 혈액흐름에 도움을 준다.

활기찬 인생! 면역력증진 ‘앤정’

천만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면역력은 외부감염 등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능력이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면역력이 감소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의 꾸준한 섭취로 면역력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젊었을때 밤을 꼬박
지새워도 끔찍 없었는데...
세월에는 장사 없더라!!

엘라이프(주) 연구개발팀
피로회복 “앤정” 개발

엘라이프(주)연구개발팀에서 개발한 “앤정”은 당당히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품목제조신고 된 제품이다. 피로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현상이다. 육체적인 피로는 운동, 영양불균형 등으로 조래되는데 보통 운동량이 많아지면 근육이나 간에 저

장된 비상에너지(글리코겐)가 고갈되어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

“앤정”은 에너지 생성에 관여하는 호르몬을 조절함으로써 피로회복에 도움을 준다.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앤정’

대뇌에서 기억을 저장해 두는 공간은 해마이다. 보통 기억력이 감소되는 노인의 경우 해마의 신경세포의 손상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뇌의 신경세포가 기능을 유지하려면 세포와 세포간에 신호를 전달하는 신경전달물질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물질이 부족하거나 세포가 잘 받아들이지 못할 때 세포들간에 신호를 전달할 수 없거나 엉뚱한 신호를 보낼 수 있다. 즉 10분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해야 할 경우 기억을 하지 못하거나 엉뚱한 기억을 꺼내 올 수 있는 것이다.

“앤정”은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권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다. / 문의 1544-5789

보급형 대용량 ‘앤정’ 출시!

5일분 무료증정 이벤트
엘라이프(주) 건강기능식품 “앤정”은 고객감사 이벤트로 세트 구입하시는 모든 고객분에게(5일분 10환)를 무료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4.2g X 120환

문의:(국번없이) 1544-5789

상담직원 모집 02-3291-5557
· 제조원:엘라이프(주) · 판매처:세종디엔케이(주)